

수신 : 관료적 문화행정 철폐와 광주비엔날레 정상화를 위한 범미술인위원회

(이하 범미위)위원 제위

발신 : 위원장 김용익

내용 : 범미위의 '문화개혁 시민연대' 참여

안녕하십니까? 이미 말씀드린대로 지난 8월 6일 인사동 '대안공간 풀'에서 범미위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범미위 활동을 보고하고 해체를 포함한 향후의 활동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참석하신 것은 아니지만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범미위가 상대적으로 한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였으나 문화 부문의 개혁 특히 고나료적인 문화행정과 정책을 개혁할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근본취지에 상응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현재 9월 18일 창립 예정인 '문화개혁 시민연대'(가칭)의 근본 취지가 범미위의 취지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문화개혁 시민연대'와 적극적인 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저희들은 '문화개혁 시민연대'와 대화를 가졌고 그 결과 현재 "문화 개혁 시민연대"는 단체 가입 방식이 아닌 개별 가입의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 '문화개혁 시민연대' 안에 공간 환경위원회(미술, 건축, 디자인 등)가 있으며 이 곳에서 그간 범미위가 수행하려고 한 미술문화 관련 개혁 활동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범미위로서는 일단 두가지 방향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1) 하나는 범미위를 계속 존속시키고 동시에 가능한 많은 위원님들이 개별 의사에 따라 문화 개혁 시민연대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며
- 2) 다른 하나는 범미위를 해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개혁 시민연대 특히 공간환경위원회에 참여하여 그간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 실무진들은 이 두 방법 중 후자 즉 2) 범미위를 해체하고 문화개혁 시민연대에 적극 가입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8월 6일 당일 회의에 참여하신 위원님분들에게 다시 각각 전화를 드려 확인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연락을 드려 의견을 청취해야 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6일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2)의 방향을 선택한 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실제로 '문화개혁 시민연대'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저희 범미위가 하려고 했던 일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별첨 문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개혁 시민연대'는 관료적 문화행정의 개혁 뿐 아니라 모든 문화적 파행 현상들을 시민들과 문화인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달리 '범미위'를 존속시킬 현실적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범미위'라는 기구를 따로 유지시

키 힘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실무진들이 그간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여 범미위의 일에 참여하여 주셨으나 실제로 기구를 운영하려면 재정이나 사무실 문제 상근자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그간 범미위의 이름 아래 우리 미술문화가 좀더 희망을 주는 것이 되게 하려는 노력에 동참해 주신 것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개혁 시민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실무진들도 문화개혁 시민연대에 참여하여 범미위의 정신에 따라 문화개혁을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모두들 건투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별첨문건: 문화개혁 시민연대 소개, 문화개혁 시민연대 회원 가입 안내

**관료적 문화행정 철폐와 광주비엔날레 정상화를 위한  
범미술인위원회: 위원장 김 용 익**